

위협인식의 변화가 작전개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공해전과 다영역작전을 중심으로*

송진호**, 설인호***

- I. 서론
- II. 이론적 논의
- III. 공해전(Air-Sea Battle)
- IV. 다영역작전(Multi-Domain Operations)
- V. 공해전과 다영역작전의 비교
- VI. 결론

요약

본 연구는 위협인식 변화가 작전개념에 미치는 영향을 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2010년대 전반부와 후반부 미국의 대중국 위협인식과 중국을 겨냥한 대표적 작전개념을 분석의 대상으로 했다. 먼저 미국의 공식적 전략문서인 국가안보전략서, 국방전략서, 국가군사전략서 등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2010년대 중반까지 미국의 대중 위협인식은 잠재적, 미래적, 차선적 성격을 갖는 반면, 2010년대 후반기가 되면 최우선적, 현재적 위협으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와 함께 두 시기를 대표하는 대중국 작전개념인 '공해전 (Air-Sea Battle)'과 '다영역작전(Multi-Domain Operations)'을 비교·분석했다. 공해전은 중국을 잠재적, 차선적 위협으로 인식한 결과로 형성 및 발전되었으며, 중국 본토의 지휘통제시설 타격을 포함한 대규모 공격 등 군사전략 상 직접적 접근 특성을 보였다. 이와 달리 다영역작전은 중국과의 실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상정하였고, 순차적이고 단계적인 접근, 경쟁 상태로의 회귀 등을 강조하는 군사전략 상 간접적 접근의 특성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분석은 대상국에 대한 위협인식의 차이가 작전개념의 성격과 양상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보여주며 동시에 개별 작전개념의 본질적 속성을 분석하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해 주고 있다.

핵심어 : 공해전, 다영역작전, 위협인식, 작전개념, 전략의 체계, 합동전영역작전

* 이 논문은 국방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위협인식의 변화가 작전 개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공해전과 다영역 작전을 중심으로"의 일부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학술논문으로 발전시킨 것이며, 본 연구의 내용은 육군 및 소속 기관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니고 연구자의 개인적인 견해를 밝힙니다.

** 제1저자, 육군3사관학교 군사사학과 강사

*** 교신저자, 국방대학교 전략학부 교수

I. 서론

1991년 소련 붕괴 이후 미국은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으로서 압도적인 지위를 유지해 왔다. 하지만, 2001년 9/11 테러 이후 20여 년간 테러와의 전쟁에 몰두했고 그사이 잠재적 경쟁국 중국은 경제적·군사적 부상을 지속해 미·중 간의 군사적 격차가 계속 좁혀지게 되었다. 이에 더해 중국은 ‘적극방어 전략’과 ‘반접근/지역거부(A2/AD, Anti-Access/Area Denial) 전략’ 및 그 이행체계를 정교화해가며¹⁾ 아시아 지역 내 패권국(regional hegemon)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했다.

미군은 이러한 미국의 전략적 문제에 대한 군사적 해법으로 2010년대 초반에는 ‘공해전(ASB, Air-Sea Battle)’을 구상하였으며 이를 합동 수준의 합동작전접근개념(JOAC, Joint Operational Access Concept)으로 발전시켰다.²⁾ 하지만 이 시기 미국의 핵심 위협은 테러 위협으로 중국의 위협은 부차적, 잠재적 위협으로 평가되었다. 따라서 중국과의 군사적 충돌은 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가상적 상황이며 핵심은 미국의 압도적 우위를 보여주고 과시하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2010년대 중반에는 고도화된 중국의 위협에 대처하고자 다영역작전(MDO, Multi-Domain Operations) 개념이 제시되고 구체화되었으며, 미군은 이를 합동전영역작전(JADO, Joint All-Domain Operations)이라는 합동 수준의 작전개념³⁾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⁴⁾ 2010년대 중반 시기는 미국이 과거와는 달리 중국을 ‘동급의 경쟁자(near-peer competitor)’로 인식했고 현재적이고 최우선적 위협으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상존하는 중국의 위협을 억제하고 수적 열세 하에서도 고도화된 중국의 군사적 역량을 극복하여 유리한 조건에서 현 상태로 신속히 회귀하고자 다중 영역(multi-domain)의 모든 수단을 활용하는 작전개념(operational concept)을 구체화했다.

위협인식에 기반하여 기획되고 발전되는 작전개념이 위협인식이 변화할 때 함께 변하는

-
- 1) 김대성. “동아시아 지역에서 미국과 중국의 군사적 분쟁 가능성에 대한 연구: 군사전략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과 국제정치』 제32권 4호 (2016), pp. 109-117.
 - 2) Air-Sea Battle Office. *Air-Sea Battle: Service Collaboration to Address Anti-Access & Area Denial Challenge* (Washington, D.C.: U.S. DoD, 2013), p. 8; U.S. Department of Defense. *Joint Operational Access Concept(JOAC) Version 1.0* (Washington, D.C.: U.S. DoD, 2012), p. 4.
 - 3) 본 연구에서 작전개념(Operational Concept)의 의미는 군의 행동 양식이자 사고의 틀/framework)으로써 한 국가의 군대가 가용한 자산을 활용하여 전투력을 운용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는 “지휘관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와 가용 자원을 사용하여 이를 달성할 방법을 명확하고 간결하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표현한 것”을 의미하는 작전개념(Concept of Operations)과는 차이가 있다. 김정익. 『한국군, 어떻게 싸울 것인가』 (서울: 황금알, 2015), p. 25; 군사용어대사전 편집위원회. 『군사용어대사전』 (서울: 청미디어, 2016), p. 604.
 - 4) 설인효. “미국의 작전수행개념의 변화와 한국군에의 함의.” 『군사논단』 제106호 (2021), p. 45; 설인효. “미중 군사혁신 경쟁과 미래전: 미국의 미래전 구상을 중심으로.” 『합참』 제87호 (2021), p. 27.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동안 미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의 작전개념이 그 국가가 대상으로 하는 적이 바뀔 경우 어떠한 변화를 보였는가에 관해서는 연구가 산출된 바 있다.⁵⁾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공해전’과 ‘다영역작전’ 개념의 비교와 같이 동일한 적에 대해 ‘잠재적·차선적 위협’으로 인식하는 경우와 ‘현재적·최우선적 위협’으로 인식하는 경우 작전개념에 발생하는 변화에 관한 연구는 부재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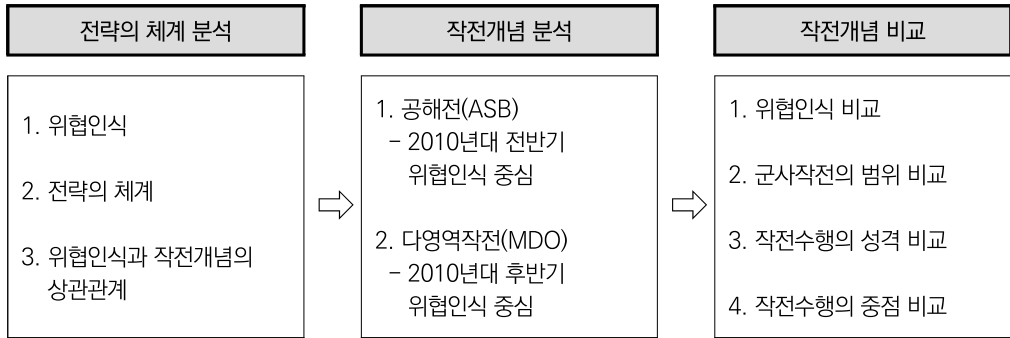
공해전과 다영역작전에 대한 많은 개별 연구가 이미 진행된 바 있음에도 대부분은 각 작전개념을 설명하고 우리 군에 적용하려는 시도가 주를 이루었다.⁶⁾ 이와 달리 본 연구는 공해전과 다영역작전이 2010년대 전반기와 2010년대 후반기 각 시기를 대표하는 미군의 대(對)중국 작전개념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또한, 두 작전개념에 대한 명확한 분석과 실질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두 작전개념을 통시적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주장한다. 현재까지 이러한 관점에서 두 작전개념을 분석한 연구는 부재한 상태이다.

본 연구는 위협인식의 변화가 작전개념에 어떠한 차이를 발생시키는지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전략의 체계’에 따라 작성된 미국의 공식 국가 전략문서와 미군의 작전개념인 공해전과 다영역작전을 분석했다. 작전개념의 변화에는 기술의 발전과 국내 정치적 고려 등 다양한 요인들이 영향을 줄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는 작전개념을 적에 의한 군사적 위협에 대항하여 자국의 안전을 확보하는 핵심 수단으로 상정하였기 때문에 적이 제기하는 위협에 집중하였다. 위와 같은 상정 아래 본 연구는 공식 전략문서를 분석하여 두 작전개념이 형성 및 발전되던 시기 미국의 위협인식을 구체화하였고 두 작전개념을 분석하여 위협인식의 변화가 초래한 차이를 추적하였다. 이와 같은 분석의 틀을 도해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5) 최영근·손한별.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 군사전략 : 압도적 우위를 위한 군사태세의 재조정.” 『한국국가전략』 제4권 3호 (2019); 강석윤. “트럼프 행정부의 군사전략과 정책적 함의: 합동군 능력의 통합성 강화와 다전장영역전투의 수행.” 『국방정책연구』 제34권 3호 (2018); 박상연. “강대국 경쟁의 재부상과 미국의 군사 전략 패러다임 전환.” 『전략연구』 제26권 1호 (2019).

6) 지효근. “미국의 새로운 전투수행 개념 발전과 한국군에 대한 함의: 다영역작전(Multi-Domain Operation)을 중심으로.” 『군사연구』 제147집 (2019); 정민섭·남궁승필·박상혁. “美 육군의 다영역 작전에 관한 연구 : 한국 육군 적용방안 중심으로.” 『차세대융합기술학회논문지』 제5권 3호 (2021); 장재규. “한국 육군 사단급 체제의 군사혁신 방향 : 다영역작전과 MDTF 적용을 중심으로.” 『한국군사』 14호 (2023); 장재규. “한반도 유사시 미군의 다영역작전 수행 평가와 한국군의 다영역작전 적용.” 『전략연구』 제30권 3호 (2023); 장재규. “한국 육군의 다영역작전 적용 방안 연구: 공지전투와 비교.” 『한국군사학논집』 제77권 3호 (2021); 지상훈·박준희. “다영역작전(MDO)에 대한 고찰과 한반도 작전전구(KTO)에서의 적용 방향.” 『군사논단』 제102권 (2020).

〈표 1〉 분석의 틀



이와 같은 분석의 틀에 따라 먼저 제2장에서 위협인식과 전략의 체계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진행하고 제3장과 4장에서는 각각 공해전과 다영역작전에 대해 분석했다. 제5장에서는 3, 4장에서 수행한 각 작전개념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두 작전개념을 비교 분석했다. 이후 6장에서는 연구를 요약하고 한국군에 대한 함의를 제시했다.

II. 이론적 논의

1. 위협인식

위협(threat)은 정책결정자에 의해 인식되는 국가안보에 미치는 군사·외교·정치·경제 등을 포함한 모든 측면에서 제기되는 해(harm)를 의미한다.⁷⁾ 이러한 위협은 시급성(urgency)에 따라서 잠재적 위협(potential threat)과 현재적 위협(present threat)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잠재적 위협이란 현시점에는 표면에 드러나지 않지만, 상황의 변화에 따라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협을 말한다. 현재적 위협은 현시점에 군사적·비군사적 차원에서 표면으로 드러나 국가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위협을 말한다. 현재적 위협은 현시점에 실제로 존재하며 직면하고 있으므로 실존적 위협(existence threat)이라고도 한다.⁸⁾

인식(perception)은 사전적 의미로 “사물을 분별하고 판단해서 아는 일”이다.⁹⁾ 한편 부

7) Cohen, Raymond. *Threat Perception in International Crisis* (Madison, WI: The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1979), p. 4.

8) 다케다 야스히로·가미야 마타케. 김준섭. 정유경(역). 『안정보장학입문』 (서울: 국방대학교 국가안정보장문제연구소, 2013), p.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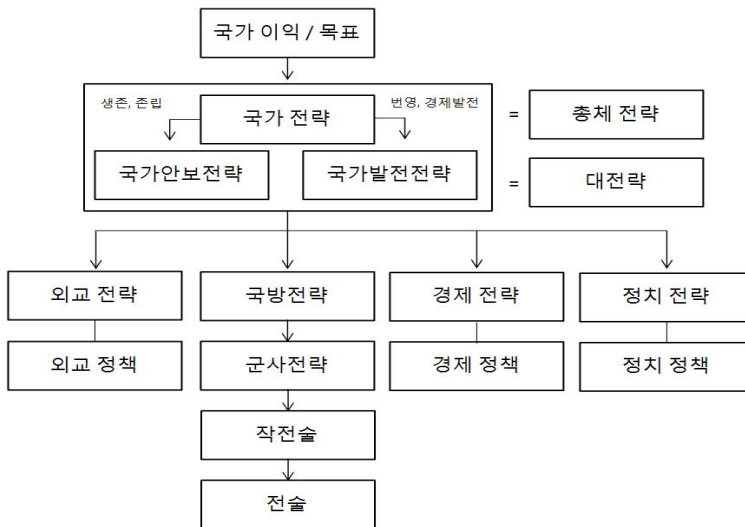
9) 이희승. 『옛센스 국어사전』 (파주: 민중서림, 2019), p. 1904.

잔(Barry Buzan)은 정책결정자의 인식에 대해 조명했다. 그에 따르면 정책결정자의 인식은 인식의 주체, 제공되는 정보의 방대함, 다른 행위자에 대한 잘못된 가정 등으로 인해 인식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에 따라 인식의 옳고 그름에 관한 판단 문제는 정치화(politicization)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¹⁰⁾

상술한 내용을 통해 위협인식(threat perception)은 정책결정자가 자신의 신념과 주관에 따라 인식한 한 국가에 제기되는 다양한 위협들을 잠재적 또는 현재적인지 분별하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부잔(Barry Buzan)은 위협인식에 대해서도 국가안보 정책의 결정과 수행에 있어서 다양한 이해관계가 개입되기 때문에 정치화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¹¹⁾ 이에 따라 정책결정자는 ‘전략의 체계’라는 논리적이고 구조화된 의사결정과정을 통해 위협 인식을 체계화하고 정당화한다.¹²⁾

2. 전략의 체계

〈그림 1〉 전략의 체계



출처 : 박창희, 『군사전략론』(서울: 플래닛미디어, 2023), p. 107을 재구성.

전략의 체계는 〈그림 1〉과 같이 국가이익과 국가목표에서 시작하여 전술에까지 이르는 수직적이며 하향적인(top-down) 구성을 갖추고 있다. 국가이익이란 “한 국가의 최고 정책

10) 배리 부잔, 김태현(역), 『세계화 시대의 국가안보』 (서울: 나남출판사, 1995), pp. 383-385.

11) 배리 부잔(1995), pp. 388-395.

12) 데니스 드류·도날드 스노우, 김진형(역), 『전략은 어떻게 만들어지나?』 (서울: 연경문화사, 2000), pp. 11-14.

결정과정¹³⁾을 통하여 표현되는 국민의 정치적, 경제적 및 문화적 욕구와 갈망”이다.¹⁴⁾ 이러한 국가이익은 국가의 존립과 직결된 생존이익부터 국가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부차적 이익 등으로 나눌 수 있다.¹⁵⁾ 국가이익의 구분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적을 어떻게 규정하고 위협을 어떻게 인식하였느냐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상술한 내용을 종합해 보면 국가이익은 최고 정책결정자의 위협인식이 정책결정과정을 통해 반영된 결과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위협인식이 반영된 국가이익은 수직적인 전략의 체계 속에서 하위 전략의 형성 및 발전에 영향을 준다는 것 또한 엿출해 볼 수 있다.¹⁶⁾

전략은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가용한 수단을 운용하는 술(art)과 과학(science)¹⁷⁾을 의미한다.¹⁸⁾ 이에 따라 국방전략은 전·평시에 추구하는 국방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군사력을 건설하고 이를 운용하는 술과 과학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또한, 군사전략은 전시를 상정하여 이때 추구하는 군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군사력을 운용하는 술과 과학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수준별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다. 이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 계획, 프로그램 구상의 출발점이기 때문이다.¹⁹⁾ 목표 설정에 있어서 선결되어야 할 점은 적을 규정하고 위협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이다. 이는 적이 제기하는 위협의 강도와 적의 능력에 따라 각 수준별로 추구하는 목표의 달성을 위한 수단과 방법을 선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목표 설정 이전 위협인식에 있어서 다양한 이해관계가 개입될 수밖에 없다.²⁰⁾ 그 결과 정책결정자는 위협인식의 정당성과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략의 체계라는 구조화된 프로세스를 활용한다.²¹⁾

13) 한 국가가 당면한 문제 해결을 위해 목적에 부합한 최선의 대안을 선택하는 합리적인 행위를 말한다.

14) 구영록. 『한국의 국가이익』 (서울: 법문사, 1995), p. 25.

15) Dennis M. Drew & Donald M. Snow. *Making Twenty-First-Century Strategy: An Introduction to Modern National Security Processes and Problems* (Maxwell Air Force Base, AL: Air University Press, 2006), pp. 31-34.

16) Dennis M. Drew & Donald M. Snow(2006), p. 31.

17) 전략에 있어서 술(art)은 경험과 직관을 바탕으로 가용한 수단의 사용 여부를 판단하고 만일 사용해야 한다면 언제(when), 어떻게(how), 왜(why) 사용해야 하는지를 논의하는 인지적 활동을 말한다. 과학(science)은 전략의 제 문제에 관해 보편적인 원리를 분석하여 이론을 도출하고 이를 실증적으로 검증하는 활동을 말한다. 군사학연구회, 『군사학개론』 (서울: 플래닛미디어, 2020), pp. 195-1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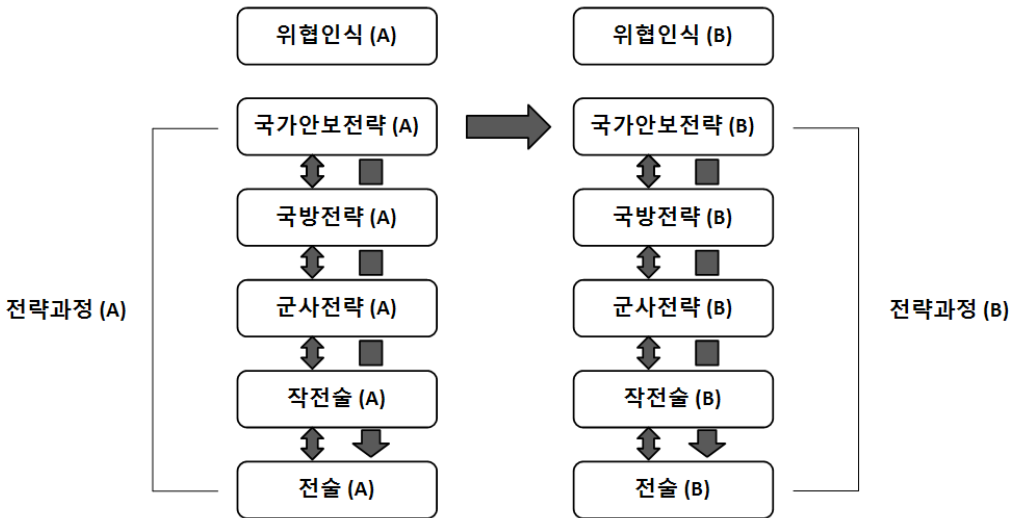
18) 박창희(2023), p. 102.

19) 박창희(2023), p. 111; 손한별·전경주. “국방전략서 작성의 이론과 실제: 미국과 영국 국방전략서가 한국에 주는 함의.” 『한국국가전략』 제16호 (2021), p. 172; 전경만 외. 『중장기 안보비전과 한국형 국방전략』(서울: 한국국방연구원, 2004), p. 10.

20) 한 국가의 안보 및 국방과 관련된 의사결정은 안보 및 국방 행위자(군, 국방 관료, 정치가, 기업 등), 정부 기관, 국제 사회 전반에 걸쳐 다양한 이해관계가 상충한다. 또한, 안보 및 국방 관련 결정은 제한된 국가 자원의 할당 과도 연관되어 국민에게도 상당한 영향을 끼치므로 명확한 우선순위 결정과 이를 위한 올바른 지침이 필요하다. Martin Neill et al., “Defense Governance and Management: Improving the Defense Management Capabilities of Foreign Defense Institutions.” *Institute for Defense Analyses* (March 1, 2017), pp. 4-7.

3. 위협인식과 작전개념의 상관관계

〈그림 2〉 위협인식과 작전개념의 상관관계



출처 : Dennis M. Drew & Donald M. Snow(2006), pp. 13-26; John M. Collins(2002), pp. 3-5를 참고하여 저자 재구성.

전략의 체계는 〈그림 2〉와 같이 수직적이고 위계적인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작전술과 전술에까지 이어진다.²²⁾ 작전술(operational art)은 작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구(theater) 내에서 전역(campaign)을 계획하고 조화시키는 술(art)이다. 전역은 여러 작전(operation)의 집합을 의미하고 이러한 작전들은 작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다수의 개별 전투로 구성된다. 작전술의 핵심 요소는 조화(orchestration)이며, 이는 협의와 광의의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조화의 협의적 의미는 전역 내 다양한 군사력을 결합하여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관계를 구성하는 것이다. 조화의 광의적 의미는 여러 전역을 연결하여 궁극적으로 국가 안보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것이다. 이때 작전개념은 작전술에 포함되며 작전술을 구현하는 방법으로 활용된다.²³⁾

위협인식의 변화는 〈그림 2〉와 같이 국가안보전략으로부터 전술에 이르기까지 변화를 초

21) Tama Jorda. "2015 Does Strategic Planning Matter? The Outcomes of U.S. National Security Reviews." *Political Science Quarterly* 130-4 (2015), pp. 740-741.

22) 박창희(2023), pp. 108-111; Dennis M. Drew & Donald M. Snow(2006), pp. 13-26; John M. Collins. *Military Strategy: Principles, Practices, and Historical Perspectives* (Washington, D.C.: Potomac Books, 2002), p. 4.

23) Dennis M. Drew & Donald M. Snow(2006), pp. 22-23, p. 115; 박창희(2023), p. 114.

래한다. 이에 따라 변화된 작전술은 이를 구현하기 위한 새로운 작전개념을 요구하게 된다. 즉, 위협인식의 변화는 작전개념의 변화를 초래하게 된다. 콜린스(John M. Collins)는 국가안보전략으로부터 전술에 이르는 전략의 체계 속에는 상호 의존적인 연계성(interdependent links)이 존재한다고 강조하였다.²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협인식은 국가안보전략 수립의 기준이 된다. 따라서 위협인식의 변화는 새로운 국가안보전략을 요구하게 된다. 이러한 위협인식의 변화는 전략의 체계상 존재하는 상호 의존적 연계성에 의해 궁극적으로 작전개념의 차이를 발생시키게 된다.

III. 공해전(Air-Sea Battle)

1. 위협인식 분석

미국은 공해전 개념이 형성되던 시기 중국의 위협 수준을 당장 해결해야 하는 최우선적인 위협이 아니라 10년에서 20년 후에나 실질적 위협으로 다가올 잠재적 위협으로 판단했다.²⁵⁾ 당시 미국의 핵심 위협은 ‘테러 위협’이었다. 따라서 당시 발표된 전략문서에서는 각 문서의 수준에 맞게 위협을 구체화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한다. 한편 미국은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해서도 전략문서별로 구체화하여 제시하였다. 하지만 당시 미국은 중국을 전략적, 미래 지향적 파트너로 지칭하며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상호 간에 이익을 추구하고자 했다.

2010년 미 국가안보전략서(NSS, National Security Strategy)에서는 중국의 군사 현대화를 감시하고 중국의 군사 현대화가 지역 및 세계적으로 미국의 이익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중국과의 상호 불신을 줄이기 위해 군 간의 의사소통을 개선하며 중국과 대만 간의 긴장을 줄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²⁶⁾ 2010년 미 4개년 국방검토보고서(QDR, Quadrennial Defense Review)에서는 중국의 군사 개발과 의사결정과정의 불투명성을 경계하였다. 특히, 중국의 중거리 탄도 미사일, 순항 미사일, 공격형 잠수함, 장거리 방공 체계, 전자전 및 네트워크 공격 역량, 최첨단 전투기, 대(對)우주 체계 등 새로운 무기체계의 개발 및 전력화를 조명하며 경계하였다.²⁷⁾ 2011년 미 국

24) John M. Collins(2002), p. 5.

25) Stephen Biddle & Ivan Oelrich. "Future Warfare in the Western Pacific: Chinese Antiaccess/Area Denial, U.S. AirSea Battle, and Command of the Commons in East Asia." *International Security* 41-1 (July 2016), pp. 10-11.

26) The White House, *National Security Strategy* (Washington, D.C.: White House, 2010), p. 43.

가군사전략서(NMS, National Military Strategy)에서도 중국의 군사 현대화와 이를 통한 군사적 발전을 경계하며 우주 및 사이버 공간과 중국 연해에서 보이는 공세성에 대해 경고하였다.²⁸⁾

상술한 바와 같이 미국은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해 경계하였다. 하지만 미국은 중국의 위협을 장기적이고 잠재적인 위협으로 인식하였고 오히려 중국을 지역 및 세계적 문제에 있어 함께할 전략적 파트너로 인식하였다. 2010년 미 국가안보전략서에서는 중국을 영향력의 중심지(center of influence)라고 표현하며 중국과 지역 내 안정과 세계 질서 유지를 위한 파트너십을 구축해 나갈 것을 천명했다.²⁹⁾ 2010년 미 4개년 국방검토보고서에서도 중국의 지역적, 세계적 역할을 인정하고 중국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한 상호 간 이익을 추구하고자 한 바를 표명했다.³⁰⁾ 2011년 미 국가군사전략서에서도 중국의 세계적 입지를 인정하며 중국과의 협력적이고 포괄적인 관계를 추구했다.³¹⁾

위와 같이 중국의 위협을 잠재적 위협으로 인식한 상황 속에서 공해전이라는 새로운 작전 개념이 형성 및 발전되게 되었다. 공해전은 작전개념이라는 수준에 맞게 중국의 군사적 위협을 구체화하여 제시했다.³²⁾ 특히, 중국의 반접근/지역거부³³⁾ 위협에 대해 구체적으로 조명했다.³⁴⁾ 하지만 중국의 반접근/지역거부 위협을 최우선적이고 실질적 위협으로 인식하지 않았으며, 10년 혹은 20년 후에서나 위협적일 것으로 판단했다.³⁵⁾ 즉, 중국의 위협을 당장

- 27) U.S. Department of Defense. *Quadrennial Defense Review Report* (Washington, D.C.: U.S. DoD, 2010), p. 31, 60.
- 28) U.S. Joint Chiefs of Staff. *The National Military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2011 -Redefining America's Military Leadership* (Washington, D.C.: U.S. JCS, 2011), p. 14.
- 29) The White House(2010), p. 3, 11, 43.
- 30) U.S. Department of Defense(2010), p. 60.
- 31) U.S. Joint Chiefs of Staff(2011), p. 14.
- 32) 미군에서 공개한 두 개의 공해전 요약문에서는 반접근/지역거부 위협의 주체를 중국이라고 명시하지 않았다. 하지만 미군의 공해전 작전개념 형성에 근간이 됐던 전략예산평가센터(CSBA, Center for Strategic and Budgetary Assessments)의 두 권의 공해전 백서(white paper)에서는 반접근/지역거부 위협의 주체를 중국이라고 명시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반접근/지역거부 위협의 주체를 중국으로 가정하였다. Jan Van Tol et al., *AirSea Battle: A Point-of-Departure Operational Concept* (Washington D.C.: CSBA, 2010), p. xi; Andrew F. Krepinevich. *Why AirSea Battle* (Washington, D.C.: CSBA, 2010), pp. 13-25.
- 33) 반접근(Anti-Access)은 아군이 전장으로의 접근하는 것을 지체시키는 것 즉, 전장으로의 이동(movement)에 영향을 주는 것을 말한다. 지역거부(Area-Denial)는 아군의 작전을 방해하는 것 즉, 전장 내의 기동(maneuver)에 영향을 주는 것을 말한다. Air-Sea Battle Office(2013), p. 2.
- 34) 공해전 요약문에서 제시한 반접근/지역거부 위협은 다음과 같다. ▲탄도 및 순항 미사일 ▲첨단 통합 방공 체계 ▲대함 무기체계 ▲유도 무기체계 ▲4세대 전투기 ▲유무인 체계 Air-Sea Battle Office. "The Air-Sea Battle Concept Summary." <https://www.hqmc.marines.mil/News/Article/Article/553062/the-air-sea-battle-concept-summary/>(검색일 : 2024.4.14.).
- 35) 비들과 오엘리히(Stephen Biddle & Ivan Oelrich)는 공해전이 형성되고 발전될 당시 미국은 중국의 반접근/지역거부 위협을 현재적 위협으로 인식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들의 세부적인 주장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당시 대부분의 군사 전문가들은 중국의 연안과 대만 영공을 제외한 태평양 전역에서 미국의 해·공군이 우위를 점

직면하여 해결해야 할 현재적 위협이 아닌 부차적이고 먼 미래에나 부상할 잠재적 위협으로 인식했다는 것이다.³⁶⁾

2. 작전개념 분석

가. 공해전의 핵심원리

공해전은 작전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작전개념이다. 이에 따라 공해전은 재래식 군사 균형 유지를 통한 태평양 지역에서 안정적이고 유리한 조건 확보라는 전략적 요구에 대한 작전적 수준에서의 조건을 달성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³⁷⁾ 이는 2011년 공해전실(ASBO, Air-Sea Battle Office)의 공해전 요약문에도 제시되어 있다. 공해전 요약문에서는 태평양이 미국의 국가이익을 보호하는데 중요한 지정학적 공간이며, 해당 공간에는 중국의 반접근/지역거부 위협이 존재하므로 이러한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는 것이 공해전의 목적이라고 했다.³⁸⁾ 하지만 공해전은 중국과의 전쟁은 물론이고 대결 또한 추구한 작전개념이 아니었다. 공해전은 중국의 군사력을 약화하거나 중국을 봉쇄하려는 목적을 갖지 않았다. 단지 중국의 도발적인 군사 행동을 억제하고 중국의 현대화된 군사력을 상쇄하기 위해 개발됐었다.³⁹⁾

위와 같은 작전적 목적을 갖는 공해전은 'NIA-D3'를 핵심원리로 제시한다. 이는 적의 반접근/지역거부 역량을 와해(disrupt)⁴⁰⁾, 격멸(destroy), 격퇴(defeat)하기 위한 네트워크화(networked), 통합화(integrated), 중심 공격(attack-in-depth)에 중점을 두는 것을 의미한다.⁴¹⁾ 먼저, 네트워크화는 임무에 따라 조직된 부대가 각 군의 절차 및 무기체계에 구애

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둘째, 당시 중국이 제2 도련선까지 도달할 수 있는 사거리를 가진 무기체계뿐만 아니라 이러한 전력을 해당 지역까지 투사해 본 경험이 부족했다. 셋째, 당시 중국이 군사적 열세를 극복하기 위해 군사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무기체계를 개발하고 도입하며 운용하는 데는 긴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상술한 주장들에 따라 그들은 중국의 위협이 실질적으로 다가오기까지는 10년에서 20년에 가까운 긴 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Stephen Biddle & Ivan Oelrich(2016), pp. 10-11.

36) 미군의 공해전 작전개념의 근간이 된 공해전 백서(white paper)를 작성한 크레피네비치(Andrew F. Krepinevich)는 중국의 반접근/지역거부 위협이 미국과의 전쟁 수행을 목적으로 형성된 게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중국이 손자의 '부전승 사상'에 따라 형(形)과 세(勢)를 갖춰서 미국의 군사 행동을 억제하고 궁극적으로 싸우지 않고 이기려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그는 공해전이 중국과의 전면전이 아닌 반접근/지역거부 위협을 상쇄해서 지역 내 군사력 균형을 유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한다. 즉, 중국의 위협을 당장 직면하여 대결해야 할 위협이 아닌 부차적이고 잠재적인 위협으로 인식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Andrew F. Krepinevich(2010), p. 2.

37) Jan Van Tol et al.(2010), p. xii.

38) Air-Sea Battle Office(2011).

39) Jan Van Tol et al.(2010), pp. x-9.

40) 와해란 아군의 역량을 통합하여 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체, 분리 및 저지하여 정상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군사 행동을 의미한다. U.S. Department of the Army. *FM 3-90 Tactics* (Washington, D.C.: U.S. Army, 2023), pp. B-6-7.

없이 실시간으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영역을 넘어 통합된 작전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네트워크화를 통해 합동군은 의사결정의 우위를 확보하고 유지하며 다양한 영역을 교차하는 작전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통합화는 적에게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 영역에서 네트워크화된 군사력을 구축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서는 통합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합동 전력의 개발, 효과적인 통합을 위한 합동 및 연합 훈련, 그리고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⁴²⁾ 보장을 위한 각 군 간의 협업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중심 공격은 공해전의 핵심 개념으로, 적의 반접근/지역거부 역량을 와해, 격멸, 또는 격퇴하기 위한 목적으로 물리적 및 비물리적 수단을 통해 적의 핵심 취약점을 공격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서 적의 C4ISR⁴³⁾ 체계를 와해하고, 적의 반접근/지역거부 역량을 격멸하며, 적의 운용 중인 무기체계를 격퇴한다.⁴⁴⁾

나. 공해전의 수행 과정

상술한 공해전의 핵심원리에 따른 공해전의 작전 수행 과정은 <그림 3>과 같이 ① 초기 적 공격 감내(withstanding the initial attack) ② C4ISR 무력화 작전(blinding campaign) ③ 미사일 제압 작전(suppression campaign) ④ 주도권 확보(seizing the initiative)로 구성된다.⁴⁵⁾

41) Air-Sea Battle Office(2011).

42) 서로 다른 국가, 군, 부대, 체제임에도 불구하고 특정 서비스, 정보, 데이터, 무기체계 등을 제한 없이 교환, 공유, 운용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한용섭, 『우리 국방의 논리』 (서울: 박영사, 2019), p. 353.

43) 지휘, 통제, 통신, 컴퓨터, 정보, 감시, 정찰(Command, Control, Communication, Computers, Intelligence, Surveillance, Reconnaissance)

44) Air-Sea Battle Office(2013), pp. 5-7.

45) 프리드버그(Aaron L. Friedberg)는 전략예산평가센터에서 발간한 공해전 백서가 제시하는 작전 수행 과정이 미 국방부가 공식화한 공해전과 상당 부분 일치한다고 했다. 특히, 그는 ① 초기 적 공격 감내 ② C4ISR 무력화 작전 ③ 미사일 제압 작전과 같은 일련의 작전선(line of operations)이 상당히 유사하다고 했다. 그러나 백서에서 후속 작전(follow-on operations)으로 제시한 ① 장기적인 작전 유지(sustaining a protracted campaign) ② 주변부 작전 수행(carrying out peripheral operations) ③ 원거리 봉쇄 실행(implementing distant blockade)은 미 국방부가 공식화한 공해전과는 거리가 있다고 했다. 그는 미 국방부가 공식화한 공해전은 직접적인 접근(direct approach)이라고 지적하면서 공해전 백서에 제시된 후속 작전(follow-on operations)에서의 원거리 봉쇄를 해상 거부(maritime denial)와 함께 미 국방부가 공식화한 공해전에 대한 간접적 대안(indirect alternative)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이에 더해 공해전 백서의 후속 작전으로 제시된 장기적인 작전 지속, 주변부 작전 수행, 원거리 봉쇄 실행은 국방부가 공식화한 공해전의 핵심원리인 중심 공격(attack-in-depth)과는 상충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미 국방부가 공식화한 공해전에는 공해전 백서가 제시한 후속 작전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봤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해전의 작전 수행 과정을 공해전 백서에 제시된 초기 작전(initial campaign) 내용만을 기반으로 다루었다. Aaron L. Friedberg, *Beyond Air-Sea Battle : the Debate over U.S. Military Strategy in Asia* (New York, NY: Routledge, 2014), p. 79; Air-Sea Battle Office(2011)를 참고하여 작성.

〈그림 3〉 공해전의 수행 과정



출처: 저자 작성

초기 적 공격 감내는 중국의 반접근/지역거부 전력의 기습 공격으로부터 동맹 및 우방국에 있는 전방기지와 주요 전력의 생존성을 확보하고 공세로의 전환을 준비하는 것이 중점이다. 이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수행한다. 첫째, 적의 공격을 조기에 포착하여 대비하기 위해 조기경보 체계를 사전 배치한다. 둘째, 여러 항공 전력들을 다수의 기지에 분산 배치한다. 셋째, 여러 기지로 분산된 항공 전력들을 위한 작전 지속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넷째, 이지스(Aegis) 체계를 갖춘 함정을 통해 다른 미사일 방어자산들을 보완한다. 다섯째, 생존성 확보를 위해 항공모함은 중국의 반접근/지역거부 체계 사정권 밖으로 이동시킨다. 마지막으로 잠수함 전력을 전방기지로 배치하여 대잠전, 정보 수집, 합동 타격 지원 임무를 부여한다.⁴⁶⁾

C4ISR 무력화 작전⁴⁷⁾은 공해전의 핵심이다. C4ISR 무력화 작전은 적의 고가치 표적(C4ISR 체계)을 식별하고, 이를 파괴 또는 기능을 저하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의 반접근/지역거부 체계는 원거리 정찰 감시 체계와 이를 통해 획득한 정보를 유통하는 통신 체계에

46) Jan Van Tol et al.(2010), pp. 54-55.

47) 국내의 한 연구에서는 blinding campaign을 인지 박탈 작전이라고 해석한다. 하지만 이러한 용어 사용은 현재 인공지능(AI) 분야의 '인지(cognition)'와 용어 인식에 혼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blinding campaign을 C4ISR 무력화 작전이라고 기술하였다. 여기서 무력화는 군사작전에서 적의 가용한 인원과 장비 등의 효과를 저하시키거나 혹은 사용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즉, C4ISR 무력화 작전은 적의 C4ISR을 기능을 저하시키거나 파괴하여 군사작전 시 효과적이지 않게 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U.S. Department of Army. *ADP 1-02: Terms and Military Symbols* (Washington, D.C.: U.S. Army, 2018), 1-68을 참고하여 작성.

크게 의존하고 있다. 중국의 이러한 정찰 감시 및 통신 체계를 파괴 또는 무력화한다면 전투 수행 체계의 효율성을 급격히 저하시킬 수 있다.⁴⁸⁾ 또한, 지휘통제 체계에 대한 물리 및 비물리적 타격을 통해서 적의 지휘통제 기능을 와해시키면 의사결정의 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⁴⁹⁾ 이를 위해 중국의 지휘통제 시설 및 통신망, 유·무인 정찰기, 초수평선(OTH, Over The Horizon) 레이더, 인공위성, 노드 및 사이트(site) 등을 파괴 또는 기능을 저하시킨다.⁵⁰⁾

미사일 제압 작전은 선행된 C4ISR 무력화 작전으로 적의 C4ISR 체계가 파괴되거나 기능이 저하된다면, 이러한 유리한 조건을 활용하여 적의 장거리 미사일 체계를 제압하는 것을 말한다. C4ISR 무력화 작전은 공해전의 핵심 요소이지만 중국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공격 능력을 저하시키고 공격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지 실제로 미국과 동맹국에 대한 실질적 타격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미사일 제압 작전은 중국의 다양한 미사일 수단에 대한 직접적인 타격을 통해 파괴하거나 저하시킴으로써 아군의 생존성을 높이려는 목적이 있다.⁵¹⁾

주도권 확보란 선행된 C4ISR 무력화 작전과 미사일 제압 작전으로 조성된 유리한 조건 아래 주도권을 장악하고 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적이 공격을 감행한다면 적은 유리한 시간, 장소, 방법을 선택하여 작전적, 기술적 기습을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적은 전략적, 작전적 주도권을 선점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아군은 적의 C4ISR 자산을 무력화하고 적의 미사일 체계를 제압하는 일련의 작전선을 통해서 빼앗겼던 주도권을 다시 재확보하는 것 중요하다. 이때 주도권 확보를 위한 최우선적 과업은 전 단계에서 수행한 미사일 제압 작전을 지속하는 것이다.⁵²⁾

48) Jan Van Tol et al.(2010), p. 56.

49) Air-Sea Battle Office(2013), p. 5.

50) 프리드버그(Aaron L. Friedberg)는 미군이 중국의 C4ISR 체계를 타격하기 위해 정밀 유도 재래식 무기를 사용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그는 C4ISR과 같은 고가치 표적들이 중국 내륙에 깊숙이 위치하여 다수의 미 정밀 유도 무기 사거리를 벗어나 있으므로, 정밀 유도 무기를 운반하여 투사하기 위한 스텔스 유인 폭격기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Aaron L. Friedberg(2014), p. 83.

51) 제압(suppression)이란 적의 인원과 장비를 일시적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수준 이하로 저하시키고 제한하는 군사 행동을 의미한다. 프리드버그(Aaron L. Friedberg)는 중국의 미사일과 이동식 발사대의 수가 지나치게 많아 높은 수준의 군사적 효과인 격멸(destroy)을 실현할 수 없다고 하였다. 따라서 그는 미군이 화력 투사를 통해 구현할 수 있는 군사적 효과가 주로 제압수준으로 한정될 것으로 보았다. 하지만 그는 이를 통해서 미국 및 동맹국에 대한 중국의 미사일 공격 규모를 제한적으로나마 줄일 수 있어 미사일 방어를 수행하는 데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다고 했다. Aaron L. Freidberg(2014), pp. 79-80; U.S. Department of Army(2018), p. 1-92를 참고하여 작성.

52) Jan Van Tol et al.(2010), p. 67.

IV. 다영역작전(Multi-Domain Operations)

1. 위협인식 분석

다영역작전이 형성되던 시기의 미국의 핵심 위협은 ‘강대국(중국과 러시아) 위협’이었다. 이에 따라 당시 발표된 미 전략문서들에서는 각각의 문서의 수준에 맞게 강대국의 위협을 구체화하고 각 문서 수준에서의 대응방안을 제시한다. 2015년까지는 러시아의 유럽 내 패권주의적 행태로 인해 러시아 중심의 강대국 위협이 주목받았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집권 이후 발표된 전략문서들에서는 중국의 위협이 대두되었다. 이전 전략문서들에서는 중국의 위협을 잠재적 위협으로 제시하였지만, 이 시기부터는 중국의 위협을 현재의 가장 실질적인 위협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즉, 중국의 위협을 즉각적으로 대응해야 할 현재적 위협으로 인식하게 된 것이다.

2017년 미 국가안보전략서에서는 중국과 러시아 두 국가를 규칙기반의 국제질서에 도전하는 수정주의 국가로 지칭하며 최우선적 위협으로 규정했다. 특히, 중국은 권위주의 체제를 추구하고, 대외적으로는 주변국의 주권을 침해하면서까지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⁵³⁾ 군사적으로는 중국이 핵무장 강화와 군비 증강에 나서면서 미국의 군사적 입지를 좁히고 있음을 조명했다.⁵⁴⁾ 즉, 중국이 핵무기를 점점 다종화 및 대량화하고 있으며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유능하고 잘 무장된 군대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강조한 것이다.⁵⁵⁾ 2018년 미 국방전략서에서는 상위 문서와 같이 핵심 위협이자 최우선적 위협으로 중국과 러시아 위협을 꼽았다.⁵⁶⁾ 특히, 중국을 전략적 경쟁의 핵심 대상으로 규정하였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⁵⁷⁾ 군사적으로는 중국이 지역 내 패권 추구를 위한 군사

53) 트럼프는 2013년부터 자신의 트위터에서 중국의 위협을 경고해 왔으며 특히 중국의 위협이 경제적 위협뿐만 아니라 안보 및 군사적 위협을 내포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러한 트럼프의 대(對)중국 위협인식은 2017년 미 국가안보전략서에 잘 투영되었다. 손한별·이진기. “트럼프 행정부의 한반도정책.” 『한국군사』 제3호 (2018), p. 15.

54) The White House.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Washington D.C.: White House, 2017), p. 3.

55) The White House(2017), p. 25.

56) U.S. Department of Defense. *Summary of the 2018 National Defense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Sharing the American Military's Competitive Edge* (Washington, D.C.: U.S. DoD, 2018), p. 2.

57) 미국은 9/11 사건 이후 장기간 ‘테러와의 전쟁’에 매진하며 군사력을 소진했고 이로 인해 중국의 부상을 허용했다는 위기의식을 가졌다. 이에 따라 2018년 미 국방전략서에서는 중국을 핵심 위협으로 규정하게 된다. 2018년 미 국방전략서에서는 러시아, 불량 국가, 그리고 테러 위협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하지만 인도 태평양 지역을 미국의 최우선적 핵심 전략 지역으로 규정함에 따라 지역 내 전략적 경쟁국인 중국의 지역 패권 추구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선언한다. 이러한 점을 통해 미국이 중국을 강대국 전략적 경쟁의 핵심 대상으로 규정하

현대화를 지속할 것이고 회색지대 전략을 계속해서 구사할 것으로 전망하며 중국의 군사적 위협을 경고했다.⁵⁸⁾ 2018년 미 국가군사전략서에서도 상술한 두 개의 상위 전략문서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중국과 러시아가 제기하는 위협을 핵심 위협으로 제시한다. 해당 전략문서는 기밀로 분류되어 개요만 제공되었음에도 중국과 러시아와의 경쟁이 미국의 주요 위협임을 명확히 밝혔다. 이에 따라 두 동급의(near-peer) 경쟁자와 맞서기 위한 전력을 구축하는 것이 국가군사전략의 중요한 부분임을 강조했다.⁵⁹⁾

다영역작전이라는 새로운 작전개념은 중국의 위협을 현재적 위협으로 인식한 상황 속에서 형성 및 발전되게 되었다. 다영역작전은 작전개념이라는 수준에 맞게 중국의 군사적 위협을 구체화하여 세부적으로 설명한다. 다영역작전에서는 중국의 위협을 단계(phase), 영역(domain), 공간 및 중심(space & depth), 행위자(actor) 측면에서 구체화했다. 먼저, 단계 측면에서는 미국이 전통적으로 전쟁으로 간주하는 수준에 못 미치는 무력분쟁 이전과 무력분쟁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드는 위협을 조명했다. 영역 측면에서는 전통적인 육, 해, 공 영역 외에도 우주, 사이버, 전자기, 정보 공간에서의 위협을 다뤘다. 공간 및 중심 측면에서는 다영역 역량으로 인해 위협이 지리적, 시간적, 영역적 제약에 덜 얽매이게 되어 다층화되었음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행위자 측면에서는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비전통적(non-traditional) 행위자’⁶⁰⁾에 의한 위협이 증가하고 있으며, 적은 이러한 점을 활용하여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점을 조명했다.⁶¹⁾

것을 알 수 있다. Kelly A. Grieco. “The 2018 National Defense Strategy: Continuity and Competition.” *Strategic Studies Quarterly* 12-2 (2018), p. 3.

58) U.S. Department of Defense(2018), p. 2.

59) U.S. Joint Chiefs of Staff. *Description of the 2018 National Military Strategy 2018* (Washington, D.C.: U.S. Joint Chiefs of Staff, 2019), p. 2, 6; Jim Garamone. “National Military Strategy Addresses Changing Character of War.” <https://www.defense.gov/News/News-Stories/Article/Article/1903478/national-military-strategy-addresses-changing-character-of-war/>(검색일: 2024.4.23.).

60) 중국은 정규군이 아닌 준군사조직 즉, 비전통적 행위자를 통해 자국의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려 한다. 중국의 준군사조직은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인민 무장경찰(People’s Armed Police)이다. 이는 국내 치안과 사회 안정 유지에 동원되지만, 국제적으로는 대테러 임무와 유엔 평화 유지 임무 수행에도 활용된다. 따라서 유사시에는 대테러 및 대반란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중국 국경 외로 배치될 가능성이 큰 조직이다. 둘째, 해상민병대(maritime militia)이다. 이는 민간 선원과 어선으로 구성되며 중국의 회색지대 활동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 또한, 이 조직의 민간 선원들은 최소한의 군사 훈련을 받는 것이 특징이다. 셋째, 민간 보안 기업이다. 민간 보안 기업은 중국의 일대일로 계획이 확장됨에 따라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중국에는 5,000여 개의 민간 보안 기업이 있으며 그중에 20여 개가 국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아직 이러한 회사가 유사시에 어떻게 활용될지는 불분명하나 필요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다. David Knoll et al.. “China’s Irregular Approach to War: the Myth of a Purely Conventional Future Fight.” <https://mwi.usma.edu/chinas-irregular-approach-to-war-the-myth-of-a-purely-conventional-future-fight/>(검색일: 2024.4.23.).

61) U.S. Army Training and Doctrine Command(TRADOC). *TRADOC Pamphlet 525-3-1 The U.S. Army in Multi-Domain Operations 2028*. December 6, 2018, p. 8.

2. 작전개념 분석

가. 다영역작전의 핵심원리

다영역작전은 중국과 러시아의 억제 및 격퇴라는 전략적 목표에 따른 치명적이고 민첩하며 회복 탄력적인 부대 태세 및 운용의 개발이라는 국방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구상된 작전적 수준의 군사 개념이다.⁶²⁾ 이를 위해 다영역작전이라는 작전개념은 적의 반접근/지역거부 체계를 돌파 및 해체하며 궁극적으로는 유리한 조건에서 경쟁으로 회귀한다는 작전적 목표를 갖는다. 또한, 다영역작전은 위와 같은 작전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① 조정된 부대 태세(calibrated force posture) ② 다영역 부대(multi-domain formation) ③ 융합(convergence)의 원리를 중시한다.

조정된 부대 태세는 적과 경쟁 및 무력분쟁 시 억제, 주도권 확보, 원정군의 전개 등을 가능하게 할 미군의 능력과 배치 등의 조합을 의미한다.⁶³⁾ 조정된 부대 태세는 전방 주둔군, 원정군, 국가 수준의 사이버 및 우주 역량과 타격 능력의 유기적인 통합으로 구현될 수 있다. 이러한 조정된 태세를 통해 경쟁 단계에서 적의 기정사실화 공격 시도를 방지함으로써 무력분쟁을 억제하고, 대규모 재래식 전투에서는 아군이 신속하게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다영역 부대는 미래의 전장 환경인 다영역 환경에서 적과의 경쟁 및 무력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필수요소인 회복 탄력성(resilience)을 갖추어 작전을 수행하는 부대이다.⁶⁴⁾ 이 부대는 독립적인 기동(independent maneuver)을 수행하며 교차 영역 화력(cross-domain fires)⁶⁵⁾을 운용한다. 다영역 부대는 강화된 방호 및 통신 체계, 기동 지원 능력, 다층적 방공 및 정찰 역량, 그리고 다영역 은폐 능력 등을 보유한다. 다영역 부대라는 핵심원리를 기반으로 편성된 부대가 다영역 특임부대(MDTF, Multi-Domain Task Force)이다. 다영역 특임부대는 적의 반접근/지역거부 체계에 대응하여 다영역 작전 환경에서 정밀 효과와 화력을 유기적으로 조합하여 작전할 수 있는 부대를 의미한다.⁶⁶⁾

62) U.S. Army TRADOC(2018), p. 24.

63) 주정율. “미 육군의 다영역작전(Multi-Domain Operations)에 관한 연구: 작전수행과정과 군사적 능력, 동맹과의 협력을 중심으로.” 『국방정책연구』 제36권 1호 (2020), p. 17.

64) 주정율(2020), p. 17.

65) 독립적인 기동은 강화된 통신 체계, 기동 지원 능력, 다영역 은폐 능력 등을 통해 타 부대 지원 없이 일정 기간 단독으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교차 영역 화력은 다영역 역량을 다양하게 조합하여 형성하는 상호지원 방식을 의미한다. 이는 지상 기반 화력에 더해 강화된 방호 체계, 다층적 방공 및 정찰 역량, 전자전 장비, 사이버 및 우주 역량을 통해 구현된다. 또한, 이를 통해 지휘관에게 다양한 선택권을 제공하고 합동군의 회복 탄력성을 확보할 수 있다. U.S. Army TRADOC(2018), p. 19.

66) “The Army’s Multi-Domain Task Force (MDTF).” *IN FOCUS*. August 22, 2023.

융합은 다영역 역량을 지속적이고 신속하게 통합하여 영역 간의 상승효과를 극대화하고 다양한 형태의 공격을 통해 적보다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효과를 최적화하여, 적에게 딜레마를 강요하는 것을 의미한다. 융합을 통해 공자는 두 가지 이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영역 간의 옵션을 다층화할 수 있다. 둘째, 교차 영역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공자는 적에게 복잡성을 부과할 수 있다. 여기서 교차 영역 시너지(XDS, Cross-Domain Synergy)는 상호보완적 효과를 조합해서 다른 영역의 취약성을 보완하거나 적에게 복잡성을 부과하여 개별적 노력의 합보다 더 큰 효과를 일으키는 것을 의미한다.⁶⁷⁾

가. 다영역작전의 수행 과정

다영역작전은 현재 상태를 경쟁의 연속체(competition continuum)로 설명한다. 경쟁의 연속체는 협력, 무력분쟁 이전 경쟁(competition below armed conflict), 무력분쟁으로 구성된다.⁶⁸⁾ 하이브리드 위협 또는 회색지대 위협⁶⁹⁾이 현존하는 상황에 기존의 평시 또는 전시라는 이분법적 구분보다는 경쟁의 연속체는 현재 상태를 좀 더 정확히 설명한다고 볼 수 있다.

다영역작전은 중국과 러시아와 같은 핵을 보유한 전략적 경쟁자들과 경쟁을 지속하는 과정에서 충돌을 억제하고 억제 실패 시 발생할 수 있는 무력분쟁에 대비한 군사작전을 구상한다. 전략적 경쟁자와의 무력분쟁이 발생하여 군사작전이 진행될 때의 궁극적인 목표는 유리한 조건을 확보한 상태에서 경쟁으로 회귀하는 것이다.⁷⁰⁾ 이를 위해 다영역작전은 무력분쟁의 단계를 돌파(penetrate), 해체(dis-integrate), 전과확대(exploit) 단계로 구분한다.

상술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영역작전은 군사작전의 단계를 총 다섯 단계로 구분하며 이는 경쟁 단계, 돌파 단계, 해체 단계, 전과확대 단계, 그리고 경쟁으로의 회귀단계로 구성된다. 상술한 군사작전의 단계를 경쟁으로의 회귀단계를 제외하고 요약하면 <그림 4>와 같다.

67) U.S. Army TRADOC(2018), p. 20.

68) U.S. Army TRADOC(2018), p. 26.

69) 회색지대 위협은 큰 비용을 초래하는 대규모 전쟁의 위협을 피하고자 비군사적 및 비물리적 수단을 활용하는 적에 의해 발생한다. 이는 특정 기간 결정적인 결과를 추구하기보다는 점진적으로 정치적 목표를 추구하는 것으로부터 유발된다. 예를 들어 중국이 수행하는 해양 지역에서의 회색지대 전술은 중국의 지리적 특성을 활용하여 중국의 연해에서 이루어지는 전술이다. 여기에는 민간 선박을 동원한 인해전술과 유격 전술 및 현대 해군의 전술이 복합적으로 활용된다. 이를 통해 중국은 어선과 민병대 및 정규 해군력을 적절히 결합하여 해상 영역을 잠식하면서 이를 기정사실화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 Michael J. Mazarr. "Mastering the Gray Zone: Understanding a Changing Era of Conflict." *Strategic Studies Institute* (December 1, 2015), pp. 55-58; 김동수·정맹석·홍성표. "중국의 해양전략과 연계한 중국방공식별구역 운영 분석과 우리의 대응방안." 『항공우주시스템공학회지』 제11권 2호 (2017), pp. 35-42를 참고.

70) U.S. Army TRADOC(2018), p. 17.

〈그림 4〉 다영역작전의 수행 과정



출처: U.S. Army TRADOC(2018), p. 26을 재구성.

경쟁 단계에서의 작전 수행 중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신뢰성 있는 억제력 현시를 통한 무력분쟁 억제, 둘째 적의 비정규전과 정보전(허위 선전, 사이버 공격)을 통한 ‘기정사실화 공격(fait accompli attack)’⁷¹⁾ 격퇴, 셋째 무력분쟁이 예상될 때 신속하게 무력분쟁으로 전환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다.⁷²⁾ 이를 위해서 범정부적 협력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비정규전(unconventional warfare) 및 대정보전(counter-information warfare)을 수행하여 비전통적 영역(정보, 우주, 사이버)에서 우위를 점해 작전적 수준에서 확산 우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⁷³⁾ 상술한 비정규전과 정보전을 통한 공격뿐만 아니라 적은 재래식 전력의 실제적 사용과 사용 협박을 통해 동맹국에 강압을 가해 불안정성을 자극하여 동맹국의 전략적 모호성을 유발할 수도 있다.⁷⁴⁾ 따라서 이러한 재래식 위협에 대한 대응도 경쟁 단계에서 필요하다.

돌파⁷⁵⁾ 단계에서의 작전 수행 중점은 전략 및 작전적 대치(stand-off) 상태를 돌파하기

71) 기정사실화 공격은 기습적인 군사 및 비군사적 행동으로 단시간에 계획한 정치적, 군사적 목표를 달성하고 이를 통해 확보한 이점을 더욱 공고히 해서 타 국가가 현 상황을 원래 상태로 회복하려 할 때 큰 비용과 위협을 수반하게 하려는 공격 방법이다. U.S. Army TRADOC(2018), p. 11을 참고.

72) U.S. Army TRADOC(2018), pp. 24-25, p. 30.

73) 박상연(2019), p. 91.

74) 송승중·손경호, “한국적 다영역작전의 개념과 요구능력.” 『2022 안보연구시리즈』 제4권 2호 (2022), pp. 127-128.

75) 국내 일부 연구들에서 ‘penetrate’를 ‘침투’로 해석했다. 하지만 침투(infiltration)는 적 지역을 은밀하게 통과함으로써 적과 교전을 최소화한 상태에서 적 후방에 유리한 위치를 점령하는 기동 형태를 의미한다. 반면, 돌파(penetration)는 적의 방어지역에서 적의 일부를 격파하여 적의 방어체계를 교란하고 이를 통해 적의 방어 지속성을 파괴하는 기동 형태를 의미한다. 다영역작전에서의 ‘penetrate’ 단계는 결정적 공간에서 적의 화력 체계를 무력화하는 등 적의 일부를 격파하는 형태이므로 적과의 교전을 회피하여 적 후방으로 기동하는 형태인 침투 대신 돌파로 구분하여 사용할 필요가 있다. U.S. Department of Army(2018), p. 1-51, 1-74를 참고.

위해 결정적 공간(decisive space)⁷⁶⁾에서 적의 장거리 화력 체계를 무력화하고 이를 통해 아군의 전략적 기동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다. 이러한 작전 수행 증점에 따른 돌파 단계의 작전 수행 과정은 총 세 단계로 구성된다. 첫째, 합동 전력을 활용하여 적의 장거리 화력 체계를 무력화한다. 둘째, 주도권 확보를 위해 다영역 전장에서 적의 기동부대와 경합한다. 셋째, 합동 전력의 전략 및 작전적 기동을 시행한다.⁷⁷⁾

해체⁷⁸⁾ 단계에서의 작전 수행 증점은 이전 단계인 돌파 단계와 연계하여 적의 장거리 화력 체계를 격퇴하고 적의 중거리 시스템을 무력화하기 위한 작전적 기동을 수행하는 것이다. 이때, 다영역 ISR 자산에 의한 지속적인 정보 수집과 수집된 정보의 공유를 통해 합동군이 적의 남은 반접근/지역거부 체계를 확인하고 타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해체 단계에서의 작전 수행 증점에 따른 세부적인 작전 수행 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적의 반접근/지역거부 체계 정보를 최신화한다. 둘째, 적의 장거리 화력 체계를 격퇴한다. 셋째, 적의 중거리 화력 체계 무력화한다. 넷째, 지상군의 작전적 기동을 수행한다.⁷⁹⁾

전과확대 단계에서의 증점은 신속한 전과확대를 통해 아군의 전략 및 작전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적이 파괴되거나 무력화된 체계를 재편성하여 아군에 대항할 태세를 갖추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와 같은 핵무기를 보유한 동급의(near-peer) 적과 충돌 시에는 여러 제약 조건으로 인해 전과확대가 제한될 수 있다. 전과확대의 구현을 위해서는 이에 최적화된 다영역 전력을 결정적 공간으로 기동시켜 적을 고립시키고 교란시켜야 한다. 이를 통해 전과확대가 제대로 구현된다면 아군은 유리한 전력비를 확보하여 결정적인 전술적 성과를 얻을 수 있다. 전과확대를 위한 작전 수행의 세부적 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적 중거리 체계를 격퇴한다. 둘째, 적 단거리 화력 체계 무력화한다. 셋째, 확보된 기동의 자유를 통해 적 지상군을 고립시키고 격퇴한다.⁸⁰⁾

경쟁으로의 회귀단계의 증점은 합동군이 이전 단계에서 확보한 군사적 성과를 유지하며, 이를 토대로 적보다 유리한 조건에서 정치적 협상을 통해 경쟁 상태로 회귀하는 것이다. 중

76) 결정적 공간(decisive space)은 작전 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며 교차 영역 역량의 운용을 완전 최적화(full optimization)하여 적보다 현저한 이점을 창출하는 지리적(geographic), 개념적(conceptual), 시간적(temporal) 위치를 의미한다. U.S. Army TRADOC(2018), p. GL-3.

77) U.S. Army TRADOC(2018), p. 32, pp. 36-37.

78) 국내의 일부 연구들에서 'dis-integrate'를 분리, 파괴 등으로 해석했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dis-integrate'를 조직을 흩어지게 하여 붕괴하게 한다는 해체로 해석하여 사용하였다. 그 이유는 서로 나뉘어 떨어지게 한다는 분리와 때려 부수거나 깨트려 흩어버린다는 파괴보다는 "적의 능력이나 전투의지를 급격히 무너뜨리는 동시에 적 C4I 체계의 교란을 통해 작전 수행 능력을 저하시킨다"라는 의미를 강조할 수 있기 때문이다. U.S. Department of Army(2018), p. 1-32를 참고.

79) U.S. Army TRADOC(2018), pp. 38-41.

80) U.S. Army TRADOC(2018), pp. 42-44.

국과 러시아와 같이 핵 능력을 갖춘 동급의 적을 완전히 굴복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다영역작전은 강대국 간의 전면전은 비현실적이라는 전제하에 유리한 조건에서 빠르게 경쟁 상태로 회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적인 작전 수행 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속 가능한 성과를 창출한다. 둘째, 장기적인 억제력을 갖추기 위한 여건을 조성한다. 셋째, 새로운 안보 환경에 적응한다.

V. 공해전과 다영역작전의 비교

1. 위협인식의 비교

본 연구의 목적은 위협인식의 변화가 작전개념에 어떠한 차이를 만들었는가를 분석하고 설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공해전과 다영역작전을 사례로 들어 확인하였다. 두 작전개념이 형성 및 발전되던 시기 위협인식을 확인하기 위해 미국의 전략문서를 분석하면서 두 시기 위협인식에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공해전의 형성 및 발전 시기 당시 미국의 위협인식을 지배했던 핵심은 '테러 위협'이었다. 이에 따라 당시 미 전략문서에서는 테러 위협에 대한 분석과 대응방안이 주로 제시되었다. 반면, 중국은 국제 질서의 안정과 상호 이익 추구를 위한 전략적 파트너로 여겨졌다. 따라서 중국의 위협은 미 전략문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 못하였다. 하지만 중국과의 분쟁과 경쟁의 가능성은 배제하지 않았다. 특히, 미 전략문서는 중국의 군사 현대화가 불투명하고 비공개적임을 지적했다. 또한, 중국이 주변국에 군사적 강압을 가하고 타국의 주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에 따른 위험성에 대해 경고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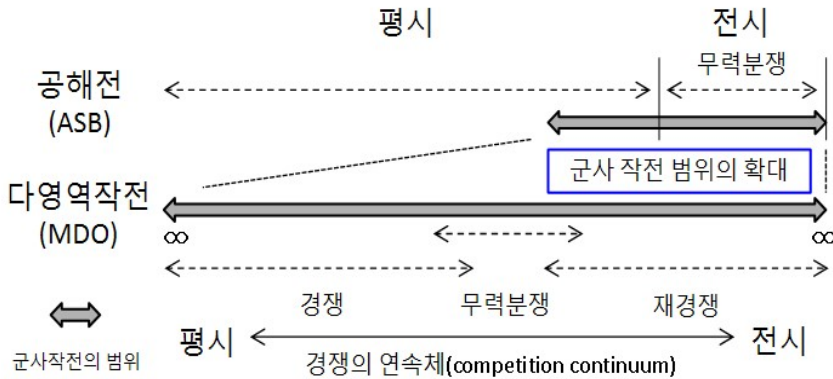
이러한 위협인식에 기초하여 형성된 공해전에서는 중국의 반접근/지역거부 위협에 대해 구체적으로 조명한다. 하지만 당시에는 중국의 군사적 위협이 미국의 군사적 역량을 압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비교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됐다. 상술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공해전은 중국의 위협을 당장 직면한 위협이 아니라 장기적 관점에서 대비가 필요한 잠재적 위협으로 인식한 결과 형성 및 발전된 작전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다영역작전이 형성되고 발전된 시기 미국의 핵심 위협은 강대국의 위협이었다. 2015년 이전까지는 테러 위협이 핵심 위협이었다면 2015년을 기점으로 '강대국 위협'이 핵심 위협으로 부상하기 시작했다. 다만 당시에는 2014년 크림반도 사태로 러시아의 패권주의적 행동으로 중국보다는 러시아의 위협이 주목받았었다.⁸¹⁾ 그러나 트럼프(Donald J. Trump)가

집권한 이후 중국의 위협이 더욱 강조되고 주목받게 된다. 특히, 미국은 중국이 지역 질서의 불안정성을 조장하고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회색지대 전략을 통해 군사와 비군사의 경계를 모호하게 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⁸²⁾ 이에 따라 공해전은 중국의 반접근/지역거부 체계 중 재래식 전력 위협을 주로 다뤘다면, 다영역작전은 재래식 위협에 더해 회색지대 위협도 실질적인 위협으로 인식하여 중시했다. 다영역작전은 중국의 군사적, 비군사적 위협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미국이 지속적으로 유지해 온 지배적 우위에 심각한 도전을 가하고 있다고 본 것이다. 즉, 이 시기 중국의 위협은 현재적, 최우선적 위협으로 인식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작전개념의 비교

〈그림 5〉 공해전과 다영역작전의 군사작전 범위 비교



출처: 장재규(2021), p. 41; U.S. Army Combined Arms Center. "The U.S. Army Concept for Multi-Domain Combined Arms Operations at Echelons Above Brigade 2025-2045 Versatile, Agile, and Lethal." <https://usacac.army.mil/sites/default/files/documents/ArmyEABConcept.pdf>(검색일: 2024.4.27.) 등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위협인식의 변화는 다양한 측면에서 작전개념의 차이를 발생시켰다. 먼저, 군사작전의 범위 측면에서는 〈그림 5〉에서 보는 바와 같은 차이를 만들었다. 공해전은 중국과의 직접적인 무력충돌 발생 시 시행되는 군사작전만을 다룬다. 반면에 다영역작전은 무력분쟁 이전의 평시도 '경쟁 상태'로 규정하며 무력분쟁이 임박한 회색지대 분쟁 상황은 물론이고 평시부터도

81) The White House. *National Security Strategy* (Washington, D.C.: White House, 2015); U.S. Joint Chiefs of Staff. *The National Military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2015* (Washington, D.C.: U.S. Joint Chiefs of Staff, 2015).

82) The White House.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Washington D.C.: White House, 2017); U.S. Department of Defense(2018).

지속적인 군사적 대응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다영역작전은 무력분쟁으로의 전환을 억제하는 동시에 실제로 충돌이 발생할 경우 다시 경쟁 상태로 회귀하는 것에 초점을 둔다.

군사작전 범위의 차이는 두 작전개념에 영향을 미친 위협인식의 차이로부터 발생한다. 중국을 잠재적 위협으로 인식했던 공해전은 군사작전의 실제 수행보다는 미국의 압도적 역량을 보여주는 데 중점이 있었다. 즉, 미국에게는 자신이 보유한 군사력을 사용하여 중국을 상대로 어떻게 압도적인 승리를 거둘 수 있는지를 현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다. 반면 다영역작전은 실질적인 대응개념이다. 다영역작전은 평시조차도 '경쟁의 연속체' 속에서 파악하며 군사적 충돌 이전 단계의 회색지대 상황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또는 군사적 준비를 강조한다. 이와 같은 준비는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하며 그 결과 군사적 충돌을 억제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이에 더해 다영역작전은 군사적 충돌 시에도 완전하고 압도적인 승리를 추구하기보다 조기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고 상대가 전쟁 지속을 단념하도록 하여 평시로 회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작전 수행의 성격 측면에서는 공해전은 직접 접근의 성격을 띠지만 다영역작전은 간접 접근의 성격을 띠고 있다. 간접 접근이란 적을 견제하여 형성된 최소저항선과 최소예상선⁸³⁾으로 기동해서 적을 교란하고 유리한 전략적 이득을 확보함으로써 최소 전투를 통해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에 직접 접근은 막대한 피해를 감수하더라도 가장 예상가능하고 방비가 잘된 장소로 견제나 교란 없이 접근하는 방식을 의미한다.⁸⁴⁾

공해전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공세적이고 직접 접근적 성격을 띤다. 공해전은 적의 중심인 C4I 체계에 대해 가하는 해·공군력을 통한 물리적 타격을 가장 중시한다. 하지만 C4I 체계가 위치한 곳은 적의 중심으로 적 지역 중 가장 방비가 잘되어 있고 적이 접근을 예상하는 지역이다. 따라서 결정적이고 압도적인 조기 승전을 추구하는 공해전은 본질적으로 직접 접근을 기반으로 할 수밖에 없다.

반면, 다영역작전은 분쟁의 억제에 초점을 두며 이에 따라 다양한 측면에서 간접 접근적 성격을 띤다. 다영역작전은 적 지역으로의 접근에 있어서 우주, 사이버, 전자전, 정보영역에서의 작전을 통해 형성된 일시적 우세의 창(temporally window of superiority)을 통해 기동 여건을 확보하려는 점이 특징이다. 또한, 공해전이 C4I 체계라는 소수의 핵심 표적에 대한 타격의 집중을 추구하는 것과 달리 다영역작전은 다수의 적 화력 체계 표적에 대한

83) 최소저항선은 적의 물리적인 방비가 가장 적은 곳이며 최소예상선은 적이 심리적으로 가장 예상하기 어려운 장소 및 방책을 의미한다. 바실 리델 하트, 주은식 역, 『전략론』 (서울: 책세상, 2020), p. 473.

84) 박창희(2023), pp. 248-250.

파괴 및 무력화를 통해서 점진적인 여건 조성과 유리한 조건 아래 원래 상태로의 회귀를 중시한다. 이는 대용목표(alternative objectives)⁸⁵⁾를 선정하여 적의 방어에 딜레마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간접 접근의 성격을 띤다고 할 수 있다.

〈그림 6〉 공해전과 다영역작전의 무력분쟁 비교



출처: 저자 작성.

두 작전개념의 무력분쟁에서의 작전 수행 중점은 서로 상이하다. 공해전은 〈그림 6〉과 같이 무력분쟁 초기 단계부터 조기에 적의 반접근/지역거부 체계의 무력화를 추구한다. 따라서 공해전은 전격적으로 적의 C4I 체계를 파괴하고 기능을 저하시키는 데 중점을 둔다. 이는 초기 적 공격 감내, C4ISR 무력화 작전, 미사일 제압 작전, 주도권 확보 등 네 단계로 구성된 작전 수행 과정에서 C4ISR 무력화 작전을 가장 중요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C4ISR 체계 중에서 지휘통제(Command & Control) 체계는 적의 중심에 위치해 있다. 이로 인해 겹겹이 배치된 수많은 방어자산에 의해 방호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은 당시 자국의 정밀 유도 무기와 스텔스 역량을 신뢰하였고 중국의 방공 및 미사일 방어 능력을 낮은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었기 때문에 중국의 지휘통제 체계를 무력화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85) 대용목표는 적에게 딜레마를 부여하여 분산을 유도하는 목표를 말한다. 아군이 단일 목표를 가졌을 때와 달리 수 개의 대용목표를 갖는다면 적을 딜레마 상황에 빠지게 하여 목표 달성 기회를 확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공자가 수 개의 대용목표를 갖는다면 방자의 입장에서 방어 조치를 취하는 데 있어서 선택의 어려움을 줄 수 있다. B. H. Liddell Hart. *Strategy* (New York, NY: Penguin Publishing Group, 1991), pp. 329-336.

반면, 다영역작전은 중국의 군사적 능력을 미국의 군사적 능력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인식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중국과의 장기간의 무력분쟁은 확전의 위험을 가중시키며 미국에 유리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다영역작전은 무력분쟁을 단시간에 치르고, 무력분쟁에서 확보한 군사적 이득을 활용하여 유리한 조건에서 정치적 협상을 거쳐 신속히 경쟁 상태로 회귀하는 것에 주안점을 둔다. 이에 따라 다영역작전은 <그림 6>과 같이 무력분쟁의 세 단계인 돌파, 해체, 전과확대 단계 중에서 전과확대에 높은 비중을 둔다.

행위자(actor)의 측면에서 공해전은 중국 정규군의 재래식 전력에 초점을 두고 있지만, 다영역작전은 중국의 비전통적 행위자 위협에 대해서도 인식한다. 이는 당시 위협인식과도 연계된다. 공해전 형성기에는 알카에다와 같은 비전통적 행위자가 최우선 위협으로 인식되긴 했으나 중국과 같은 강대국과의 잠재적인 재래식전 위협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공해전은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고자 형성된 작전개념이었으므로 중국 정규군의 재래식 전력에 초점을 둘 수밖에 없었다.

반면, 다영역작전 형성기에는 중국과 러시아와 같은 강대국과의 전략적 경쟁이 최우선 과제로 규정됐다. 이로 인해 두 강대국과의 재래식 전면전에 대한 위협에 더해 특히 남중국해와 우크라이나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준군사조직과 같은 비전통적 행위자를 통해서 회색지대 전략을 구사하는 것에 대한 위협성이 강조되었다. 따라서 강대국의 정규군 외에도 대리 세력으로서의 비전통적 행위자 또한 중요한 행위자로 인식하게 되었다.

VI. 결 론

본 연구는 위협인식이 작전개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특히 위협 대상 변화에 따른 작전개념 변화를 분석한 기존의 연구들과 달리 동일한 국가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작전개념 변화에 미치는 연쇄적 영향에 주목하였다. 이를 위해 2010년대 초반과 후반 미국의 대중국 위협인식을 비교하고 각 시기 중국을 겨냥한 작전개념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미국은 2010년대 전반부의 경우 여전히 ‘테러 위협’을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군사위협으로 규정하였고 중국의 부상으로 인한 위협은 부차적이고 잠재적인 위협으로 인식했다. 이와 달리 2010년대 중반이 되면 중국의 군사적 부상과 인민해방군 현대화는 미국에 대한 가장 시급하고 우선적인 위협으로 인식되며 2017년 출범한 트럼프 행정부는 국가안보전략서, 국방전략서 등 주요 전략서를 통해 중국의 최대의 안보, 군사위협으로 규정하기 시작했다.

이와 같은 위협인식의 변화는 중국을 상대로 한 작전개념에도 근본적 변화를 발생시켰다. 2010년대 전반부 동안 중국을 겨냥한 대표적 작전개념이었던 공해전은 중국의 반접근/지역 거부 전략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국은 중국을 상대로 압도적 승리를 달성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데 강조점이 있었다. 공해전의 핵심은 적 C4ISR 체계의 조기 파괴이며 이를 위해 초기 단계부터 적 본토에 대한 공격을 실시하고자 한다.

2010년대 중반 이후 등장하여 미 합참 작전개념의 근간으로 발전되고 있는 다영역작전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른 양상을 띤다. 다영역작전은 먼저 분쟁 이전의 평시 역시 '경쟁의 연속체' 속에서 인식하여 높은 수준의 대비태세 유지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나아가 군사충돌 발생 이전의 회색지대 분쟁의 중요성과 대응 필요성을 강조하며 일부 비물리적 작전의 수행과 물리적 작전 수행 준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다영역작전 하 군사작전 역시 공해전과는 확연히 다르다. 다영역작전 하에서는 적 반접근/지역거부 체계의 전면적 파괴와 마비가 아닌 돌파와 점진적 파괴, 전과의 확대 과정을 중시한다. 이와 같은 순차적 작전 진행 과정에서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고 적의 단념과 협상을 통한 해결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중국과 같은 핵 보유 초강대국을 상대로 한 전쟁은 자칫 핵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와 같은 분석을 통해 본 연구는 적에 대한 위협인식이 잠재적, 부차적인 것으로부터 실질적, 최우선적으로 변할 때 나타나는 작전개념 상의 변화들을 발견하였다. 적으로부터 초래되는 위협이 잠재적이고 부차적일 경우 작전개념은 직접적 접근의 성격을 나타냈다. 이에 반해 적을 실질적, 최우선적 위협으로 인식하는 경우 작전개념은 간접 접근의 성격을 띤다. 즉 적의 주력을 직접 지향하여 결전을 치르기보다 다양한 방식의 비대칭적 공격을 통해 적의 마모를 초래하고 유리한 여건의 조성으로 적을 압박하면서 전쟁의 확대보다는 협상에 의한 해결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은 개별 작전개념을 이해하는 새로운 지평을 제공하고 있다. 작전개념은 군사적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군의 핵심적인 대응 수단이다. 따라서 특정 작전개념의 본질과 진의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해당 시기 전략적 상황과 군사기술, 주요 무기체계와 전략 문화 등도 중요하지만 적에 대한 위협인식이 반드시 고려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위협인식의 변화에 따른 작전개념의 차이가 어떻게 발생하였는지를 조명하였다. 이를 통해 작전개념이 가지는 주요 속성에서 상대 국가에 대한 작전 수행국의 위협인식이 드러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위협인식과 작전개념의 관계는 한국군의 작전개념 발전 과정에도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급변하는 안보환경을 고려할 때 향후 한국군 역시 다양한 작전개념을 개발하

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이 과정에서 당면하고 임박한 북한의 군사위협뿐 아니라 미래에 제기될 다양한 형태의 잠재적 위협도 고려하게 될 것이다. 한반도의 군사 상황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은 위협은 북한 위협에 비해 부차적이고 후순위적인 것일 수밖에 없다.

본 연구의 결과에 비춰볼 때 잠재적 위협에 대한 현재의 작전개념은 직접 접근의 성격을 띠며 가능성이 크며 충분히 발전되어 있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본 연구의 결과는 위협인식 변화에 따른 작전개념의 변화를 보여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작전개념의 발전 방향을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실행 가능한 현실적 작전개념으로 발전하기 위해 어떠한 요소와 특성을 갖추어야 하는지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2010년대 중반 공해전의 명칭이 공식 폐기되고 새로운 작전개념 모색이 본격화된 것은 공해전의 비현실성과 그로 인한 억제력 약화가 강한 비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론상 반접근/지역거부 전략으로부터 자유로운 스텔스 전력이 중국 본토 깊은 곳에 접근하여 소수의 핵심 C4ISR 자산을 타격할 경우 중국군의 지휘체계는 마비되고 미국은 손쉬운 승리를 선언할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공격이 미중 양국 사이의 핵전쟁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으며 그 결과 실제로 미국이 공해전을 시행하는 것은 어렵다는 점이다. 미국이 이와 같은 부담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 사실일 경우 중국에 대한 억제력은 약화된다. 일정 수준 이하의 군사적 도발에 대해 미국이 실제로 공해전을 시행할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다영역작전은 다양한 수준의 상황에서 실질적 적용이 가능한 현실화된 작전개념이다. 중국이 대만과 남중국해를 배경으로 감행할 수 있는 회색지대 분쟁이나 낮은 수준의 군사작전에 대해 다영역작전 개념 하 미군은 각각 적절한 수준의 대응을 할 수 있다. 그 결과 실질적 억제력이 발휘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군의 작전개념 역시 마찬가지이다. 급변하는 안보환경 고려 시 현재의 잠재적 위협이 향후 실질적 위협으로 부상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이러한 상황이 실제 발생할 경우 한국군은 실질적 억제력을 담보, 발휘할 수 있는 현실성 있는 작전개념을 준비하고 발전시켜야 한다. 본 연구가 제시하는 현실적, 최우선적 위협에 대한 작전개념의 속성은 이러한 작전개념의 지향점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강석율. “트럼프 행정부의 군사전략과 정책적 함의: 합동군 능력의 통합성 강화와 다전장영역전투의 수행.” 『국방정책연구』 제34권 3호 (2018).
- 구영록. 『한국의 국가이익』 (서울: 법문사, 1995).
- 군사용어대사전 편집위원회. 『군사용어대사전』 (서울: 청미디어, 2016).
- 군사학연구회. 『군사학개론』 (서울: 플래닛미디어, 2020).
- 김대성. “동아시아 지역에서 미국과 중국의 군사적 분쟁 가능성에 대한 연구: 군사전략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과 국제정치』 제32권 4호 (2016).
- 김동수·정맹석·홍성표. “중국의 해양전략과 연계한 중국방공식별구역 운영 분석과 우리의 대응방안.” 『항공우주시스템공학회지』 제11권 2호 (2017).
- 김정익. 『한국군, 어떻게 싸울 것인가』 (서울: 황금알, 2015).
- 다케다 야스히로·가미야 마타케. 김준섭. 정유경(역). 『안전보장학입문』 (서울: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2013).
- 테니스 드류·도날드 스노우. 김진항(역). 『전략은 어떻게 만들어지나?』 (서울: 연경문화사, 2000).
- 바실 리델 하트. 주은식 역. 『전략론』 (서울: 책세상, 2020).
- 박상연. “강대국 경쟁의 재부상과 미국의 군사 전략 패러다임 전환.” 『전략연구』 제26권 1호 (2019).
- 박창희. 『군사전략론』 (서울: 플래닛미디어, 2023).
- 배리 부잔. 김태현(역). 『세계화 시대의 국가안보』 (서울: 나남출판사, 1995).
- 설인효. “미국의 작전수행개념의 변화와 한국군에의 함의.” 『군사논단』 제106호 (2021).
- 설인효. “미중 군사혁신 경쟁과 미래전: 미국의 미래전 구상을 중심으로.” 『합참』 제87호 (2021).
- 손한별·이진기. “트럼프 행정부의 한반도정책.” 『한국군사』 제3호 (2018).
- 손한별·전경주. “국방전략서 작성의 이론과 실제: 미국과 영국 국방전략서가 한국에 주는 함의.” 『한국국가전략』 제16호 (2021).
- 송승중·손경호. “한국적 다영역작전의 개념과 요구능력.” 『2022 안보연구시리즈』 제4권 2호 (2022).
- 이희승. 『옛센스 국어사전』 (파주: 민중서림, 2019).
- 장재규. “한국 육군 사단급 제대의 군사혁신 방향 : 다영역작전과 MDTF 적용을 중심으로.”

- 『한국군사』 14호 (2023).
- 장재규. “한국 육군의 다영역작전 적용 방안 연구: 공지전투와 비교.” 『한국군사학논집』 제 77권 제3호 (2021).
- 장재규. “한반도 유사시 미군의 다영역작전 수행 평가와 한국군의 다영역작전 적용.” 『전략연구』 제30권 3호 (2023).
- 전경만 외. 『중장기 안보비전과 한국형 국방전략』 (서울: 한국국방연구원, 2004).
- 정민섭·남궁승필·박상혁. “美 육군의 다영역 작전에 관한 연구 : 한국 육군 적용방안 중심으로.” 『차세대융합기술학회논문지』 제5권 3호 (2021).
- 주정율. “미 육군의 다영역작전(Multi-Domain Operations)에 관한 연구: 작전수행과정과 군사적 능력, 동맹과의 협력을 중심으로.” 『국방정책연구』 제36권 1호 (2020).
- 지상훈·박준희. “다영역작전(MDO)에 대한 고찰과 한반도 작전전구(KTO)에서의 적용 방향.” 『군사논단』 제102권 (2020).
- 지효근. “미국의 새로운 전투수행 개념 발전과 한국군에 대한 함의: 다영역작전(Multi-Domain Operation)을 중심으로.” 『군사연구』 제147집 (2019).
- 최영근·손한별.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 군사전략 : 압도적 우위를 위한 군사태세의 재조정.” 『한국국가전략』 제4권 3호 (2019).
- 한용섭. 『우리 국방의 논리』 (서울: 박영사, 2019).
- “The Army’s Multi-Domain Task Force (MDTF).” *IN FOCUS*. August 22, 2023.
- Aaron L. Friedberg, *Beyond Air-Sea Battle : the Debate over U.S. Military Strategy in Asia* (New York, NY: Routledge, 2014).
- Air-Sea Battle Office. “The Air-Sea Battle Concept Summary.” <https://www.hqmc.marines.mil/News/Article/Article/553062/the-air-seabattle-concept-summary/>(검색일 : 2024.4.14.).
- Air-Sea Battle Office. *Air-Sea Battle: Service Collaboration to Address Anti-Access & Area Denial Challenge* (Washington, D.C.: U.S. DoD, 2013).
- Andrew F. Krepinevich. *Why AirSea Battle* (Washington, D.C.: CSBA, 2010).
- B. H. Liddell Hart. *Strategy* (New York, NY: Penguin Publishing Group, 1991).
- Cohen, Raymond. *Threat Perception in International Crisis* (Madison, WI: The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1979).
- David Knoll et al.. “China’s Irregular Approach to War: the Myth of a Purely Conventional Future Fight.” <https://mwi.usma.edu/chinas-irregular-approach-to-war-the-myth-of-a-purely-conventional-future-fight/>(검색일: 2024.4.23.).

- Dennis M. Drew & Donald M. Snow. *Making Twenty-First-Century Strategy: An Introduction to Modern National Security Processes and Problems* (Maxwell Air Force Base, AL: Air University Press, 2006).
- Jan Van Tol et al.. *AirSea Battle: A Point-of-Departure Operational Concept* (Washington D.C.: CSBA, 2010).
- Jim Garamone. "National Military Strategy Addresses Changing Character of War," <https://www.defense.gov/News/News-Stories/Article/Article/1903478/national-military-strategy-addresses-changing-character-of-war/>(검색일: 2024.4.23.).
- John M. Collins. *Military Strategy: Principles, Practices, and Historical Perspectives* (Washington, D.C.: Potomac Books, 2002).
- Martin Neill et al.. "Defense Governance and Management: Improving the Defense Management Capabilities of Foreign Defense Institutions." *Institute for Defense Analyses* (March 1, 2017).
- Michael J. Mazarr. "Mastering the Gray Zone: Understanding a Changing Era of Conflict." *Strategic Studies Institute* (December 1, 2015).
- Stephen Biddle & Ivan Oelrich. "Future Warfare in the Western Pacific: Chinese Antiaccess/Area Denial, U.S. AirSea Battle, and Command of the Commons in East Asia." *International Security* 41-1 (July 2016).
- Tama Jorda. "2015 Does Strategic Planning Matter? The Outcomes of U.S. National Security Reviews." *Political Science Quarterly* 130-4 (2015).
- The White House, *National Security Strategy* (Washington, D.C.: White House, 2010).
- The White House. *National Security Strategy* (Washington, D.C.: White House, 2015).
- The White House.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Washington D.C.: White House, 2017)
- The White House.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Washington D.C.: White House, 2017).
- U.S. Army Training and Doctrine Command(TRADOC). *TRADOC Pamphlet 525-3-1 The U.S. Army in Multi-Domain Operations 2028*. December 6, 2018.

- U.S. Department of Army. ADP 1-02: Terms and Military Symbols (Washington, D.C.: U.S. Army, 2018).
- U.S. Department of Defense. *Quadrennial Defense Review Report* (Washington, D.C.: U.S. DoD, 2010).
- U.S. Department of Defense. Summary of the 2018 National Defense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Sharing the American Military's Competitive Edge (Washington, D.C.: U.S. DoD, 2018).
- U.S. Department of Defense. Joint Operational Access Concept(JOAC) Version 1.0 (Washington, D.C.: U.S. DoD, 2012).
- U.S. Department of Defense. *Summary of the 2018 National Defense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Sharing the American Military's Competitive Edge* (Washington, D.C.: U.S. DoD, 2018).
- U.S. Joint Chiefs of Staff. *Description of the 2018 National Military Strategy 2018* (Washington, D.C.: U.S. Joint Chiefs of Staff, 2019).
- U.S. Joint Chiefs of Staff. *The National Military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2011 -Redefining America's Military Leadership* (Washington, D.C.: U.S. JCS, 2011).
- U.S. Joint Chiefs of Staff. *The National Military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2015* (Washington, D.C.: U.S. Joint Chiefs of Staff, 2015).

A Study on the Impact of Changes in Threat Perception on Operational Concepts : Focusing on Air-Sea Battle and Multi-Domain Operations

Jinho Song & Inhyo Seol

Keywords

Air Sea Battle(ASB), Multi-Domain Operations(MDO), Threat Perceptions, Operational Concepts, System of Strategies, Joint All-Domain Operations(JADO)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impact of changes in threat perception on operational concepts, with a particular focus on the United States. It analyzes the evolution of the U.S. perception of the Chinese threat from the early to the late 2010s and examines representative operational concepts aimed at China during these periods. Initially, the study delves into official U.S. strategic documents, such as the National Security Strategy, National Defense Strategy, and Military Strategy, to trace the trajectory of threat perception. It was observed that up until the mid-2010s, the U.S. perceived the Chinese threat as latent, future-oriented, and secondary. However, by the latter half of the decade, this perception shifted towards viewing China as a primary and immediate threat. Furthermore, the study conducts a comparative analysis of two pivotal operational concepts targeting China from these respective periods: ‘Air-Sea Battle’ and ‘Multi-Domain Operation.’ The ‘Air-Sea Battle’ concept, which emerged during a time when China was considered a latent and secondary threat, is characterized by direct military strategies, including large-scale attacks targeting command and control facilities on the Chinese mainland. Conversely, the ‘Multi-Domain Operation’ concept, which presupposes the potential for actual military conflict with China, emphasizes a more indirect military strategy, advocating for a sequential and phased approach and a return to a state of competition. This analysis highlights how differences in the perception of threats against a target nation can influence the nature and characteristics of operational concepts.

Additionally, it offers a new perspective on analyzing the intrinsic attributes of individual operational concepts, underscoring the dynamic interplay between threat perception and strategic military planning.

[논문투고일: 2024. 4. 28.]

[심사의뢰일: 2024. 5. 20.]

[게재확정일: 2024. 6. 19.]